

인천시에 전세 피해 노력·문제해결 촉구

김대영 인천시의원 시정질문서 “피해자들 고통 함께 느껴주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주당·비례대표)의원은 5일 ‘인천시 집행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방향에 대해’라는 주제로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피해사태에 대해 일 년이 경과된 지금 인천시가 어떠

한 노력을 하며 점검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이자 최대 발생지역인 미추홀구·시청 부근에 있어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담 인력 수도 부족하고 전세피해지원센

터에는 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데에 비해 경기도와 부산시는 인천보다 피해사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공무원을 투입해 전세피해사태의 업무만 전담하고 있음을 밝히며 센터 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최근 전세피해지원주택은 단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단전·단수·누수 등 건물째에 문제가 생겨서 악취와 곰팡이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에 대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했으며 전세사기로 돈도 잃

고 삶의 터전까지 잃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300만 도시 인천시의 수장인 유정복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보이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세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자 직접 경기도와 부산시의 센터를 방문해 인천시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김동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5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인천 계양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천 계양구의회

인천 계양구의회는 5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이상호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유재균(한국산업기술원) 소장, 강성은·구종본·김병섭 세무사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하며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해 지난 1년간 집행실적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살펴본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호 대표위원은 “전문가분들과 같이 결산검사를 수행하게 돼 기대가 크고 올해 위원이 한 명 더 늘어난 만큼 더욱 세심히 들여다보고 구 재정 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양희 의장은 “결산검사가 재정 집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무운영과 예산집행으로 연결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웅 기자

수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선출

김택균 위원장 선출

수원시의회회는 5일 의장 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를 강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

문위원회 설치는 의무화됐다.

언론계·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 며,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김택균 변호사가 선출됐다.

김기정 의장은 “다방면의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게 된 만큼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윤리심사자문에 공정하고 엄중하게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

화성지역 새마을회 방문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팔탄면에 위치한 화성시 새마을회관을 방문해 새마을회 회장단 및 관계자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이은진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섭 부위원장, 배현경·차순익 위원이 함께 동행했으며 새마을회의 회장단으로부터 주요 활동 내용 및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애로사항을 청취 후 화성시의회의 지원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문한 화성시 새마을회는 화성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새마을운동 단체로서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정화활

동, 소외계층 지원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계승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다.

이은진 위원장은 새마을회 회장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시는 새마을회분들의 노고에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단체 특성에 맞게 봉사활동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승수 기자

수원지역 정책과제 추진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56개의 정책과제 의견수렴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5일 수원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수원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수원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는 △수변공원 추진 및 도시 문화공간 확보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및 확대추진 △군소읍 피해조사 및 보상 추진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 △공영시설 확충 △공용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경기도 청년정책 강화 및 청년정책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최중현(민주당·수원7) 위원장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바다형 신호등 설치 확대 추진’을 제안했고, 김호겸(국민의힘·수원5) 의원은 ‘반려동물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추진’을 제안했다.

황대호(민주당·수원3) 의원은 ‘경기도 소읍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수원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수원지역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정도 피해 실태조사 및 군소읍피해지역 보상, 법률지원 등 군소읍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 확대’를 제안했고, 한원찬(국민의힘·수원6)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과 통합주차장 신설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은 ‘호수공원내 분수대 및 체험·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제안했고, 장한별(민주당·수원4) 의원은 ‘축구장·야구장 등 지역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해

여가와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채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임대 오피스텔 지원’을 제안했고, 최승용(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생활 밀착형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정윤경(민주당·군포1)·윤태길(국민의힘·하남1)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56개의 현안들은 경기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각 정책제안이 타당공문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 되도록 수원특례시와 협력을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최중현·김호겸·황대호·한원찬·이오수·장한별·이채영·최승용·김도훈 수원시 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인창 기자

남양주 흥원 일대 ‘어싱 조성’ 제안

이석균 경기도의회 의원 “문화유산 역사 가치 향상”

흥선대원군 묘소인 남양주 ‘흥원’ 일대를 역사문화공원 개방에 이어 어싱(맨발 걷기, Earthing) 조성을 위한 제

의안이 나온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의원은 경기도·남양주시 관계 공무원 등과 흥원 주변 둘레길을 활용한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흥원 일

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도민에게 개방했으며 주변으로 바람길·사색길·석파길·소리길 등 약 2km에 걸쳐 둘레길이 조성됐다.

이 의원은 따르면 도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흥원 주변에 구성된 둘레길을 활용, 최근 각광 받는 맨발 걷기 길 조성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흥원 주변 둘레길을 활용해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되면 경기도

민의 건강 증대는 물론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흥원의 역사적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흥원은 조선 고종의 생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묘역으로 과거 고양군 공덕리와 파주군 대덕리를 거쳐 1966년 현재 장소인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로 이장됐다.

김인창 기자

일간경기
www.1gan.co.kr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뉴스체크

일간경기 모바일앱

진짜
간편하네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검색창에 일간경기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